

융복합 간호윤리수업 개발을 위한 학생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과 수업만족도 비교

정선영, 김창희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Comparing the Ethical Knowledge, Ethical Values and Class Satisfaction by Students' Cognitive Style to Develop the Convergent Nursing Ethic Class

Sun-Young Jeong, Chang-Hee Kim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인지양식을 고려한 융복합적 간호윤리수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간호학생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과 수업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 1학년 149명을 대상으로 간호윤리수업을 4주 동안 12시간 시행한 후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잠입도형검사로 인지양식을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62.4%가 장의존형 인지양식으로 나타났다. 인지양식과 윤리지식은 졸업한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은 학과 만족도에 따라,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는 간호학과지원동기와 학과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는 장의존형 학습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과 전공과목에서 인지양식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융복합, 인지양식,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수업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was to compare the ethical knowledge, values and class satisfaction by students' cognitive style to develop the convergent nursing ethic class considering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49 freshmen after 12 hours classes for four weeks from October 1st to 30th 2013. Group Embedded Figure Test was used as a cognitive style measurement tool. 62.4% of them were field-depend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gnitive style and ethical knowledge according to high school division. The ethical value was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nursing science satisfaction. Class satisfaction was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ason for applying to nursing and nursing science satisfac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thical knowledge and values by cognitive style. Class satisfaction was higher in field-dependent students. This conclusion will give baseline data to develop nursing education program based on cognitive style.

Key Words : Convergence, Cognitive style, Ethical knowledge, Ethical value, Class satisfaction

Received 4 September 2015, Revised 30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Chang-Hee Kim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Email: nursech@kony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문인으로서 간호사는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옹호자로서 대상자를 돕는 의무를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1,2]과 최종학력, 밤 근무 여부, 졸업 후 윤리교육 이수여부, 종교[2] 등으로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이 연령과 경험에 따른 개인적 성장에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졸업 후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간호 윤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간호대학생이 미래 임상현장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간호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3].

간호교육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윤리 교과목이 독립 교과목으로 운영되기보다 타 교과목과 통합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4]. 간호윤리 교육 내용은 크게 생명 윤리와 전문적 윤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교수방법은 강의, 질의응답, 비디오 시청, 사례분석, 조별 토론 및 토의, 문제중심학습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5,6]. 그러나 대부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한 학기 16시간 이하이므로 수업 시간에 질문과 탐구를 장려하며 가치의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기존의 검증된 지식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창의력과 도덕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7].

최근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이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한 성과중심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중시하게 되었다[8].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체득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학습자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인지양식은 학습자가 사물이나 현상을 지각할 때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개별적인 특성이기다[9]. 학습자의 인지양식에 따라 동일한 학습내용과 방법이라 하더라도 학습효

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개개인의 인지양식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학습전략을 설계하고 학습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10,11].

인지양식은 외부 환경에서 사물을 지각할 때 정보를 수집, 처리,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으로[9] 인지적 활동 뿐 아니라 사회관계 형성, 성격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12]. Witkin, Moore, Goodenough와 Cox는 1977년에 배경이나 환경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장독립형(field independent)과 장의존형(field dependent) 두 가지 인지양식을 기술하였다[13]. 장독립형-장의존형 인지양식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장독립형 인지양식의 경우 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며 분석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장의존형 인지양식은 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으며 포괄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경향을 가진다.

장독립형-장의존형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잠입도형검사(Embedded Figure Test)법을 사용한다. 잠입도형검사는 복잡한 도형 속에 숨겨진 도형을 찾아내는 것으로 사물을 그 사물이 속해 있는 장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지각하는지 또는 사물이 속한 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분석적으로 지각하는지를 확인하여 장 독립적·장의존적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장 독립적 인지양식을 가진다는 의미이다[12,14].

인지양식에 따른 개인차는 선호하는 교수-학습 방법에도 차이를 보인다. 장독립형 학습자는 비구조화된 자료나 상황을 비교적 쉽게 분석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교정적인 피드백을 이용하고 자세한 지도가 없어도 쉽게 문제해결이 가능한 반면, 장의존형 학습자의 경우 구조화된 자료를 좋아하고 교정적인 피드백과 자세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15,16]. 즉 장독립형 학습자는 개인적인 성찰과 내면의 규범을 통해서 지식, 태도, 기술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장의존형 학습자의 경우 교사나 동료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구조화된 외부 자료를 이용한 토론방식이 학습에 도움을 준다. 장독립형-장의존형 인지양식은 비교적 변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성향이므로[9,10,12] 어느 한 쪽 성향에만 적합한 교육이 아닌 장독립형 집단, 장의존형 집단, 그리고 극단적인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 중간집단에서도 적합한 교수-학습 방

법을 고려하여야 학습자 모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이학이나 공학, 예체능 계열의 학생보다 장의존적으로 알려져 있다[10,17]. 그러나 문과에 비하여 장독립적이라 알려진 이과[13]를 전공한 고등학생들도 간호대학에 입학하므로 간호대학 입학생의 인지양식을 파악하고 다양한 인지양식을 가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간호윤리수업의 목표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학습성파에 따라 지식 측면에서는 윤리지식 습득, 태도 측면에서는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함양, 술기 측면에서는 도덕적 판단력과 윤리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간호윤리수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간호윤리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정련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인지양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문이나 교과 간에 지식과 사회적·인지적 역량을 상호 관련시키고자 새로운 통합적 교육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18]. 인지양식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교육학적 지식과 경험을 간호윤리 수업에 융합한다면 지식, 태도, 술기 측면에서 간호윤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인지양식을 적용한 연구는 컴퓨터를 수업매체로 활용하여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에 관한 학습내용을 전달한 후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수업평가를 인지양식별로 비교한 연구[19]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지양식을 파악하고 인지양식별로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윤리수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인지양식에 따른 간호윤리 교수방법 개발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양식과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 차이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

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를 비교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지양식별로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 일 개 4년제 간호학과 1학년 총 158명이다. 표본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양측검정을 이용하여 독립된 두 그룹의 평균 비교 연구에서 중간 효과크기(effect size) .50,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1- β) .90을 적용했을 때 총 140명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와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적합하였다. 탈락자를 고려하여 15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53부를 회수하였고, 작성내용이 불충분한 4명을 제외한 14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지양식 검사 도구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및 수업 만족도 관련 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인지양식 검사 도구

간호대학생의 인지양식을 검사하기 위하여 Witkin, Oltman, Raskin과 Karp[14]가 개발하고 이효정[12]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제작, 번안한 집단잠입 도형검사(Group Embedded Figure Test, GEFT)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복잡한 도형 속에 숨겨진 단순 도형을 찾아내어 개인의 장의존 및 장독립 인지양식을 구분하는 것으로서 총 32개 문항이며, I부 16개 문항과 II부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한시간은 10분씩 총 20분이다. 인지양식 검사 결과치리는 Sung, Lee와 Ro[19]가 적용한 총점계산식에 따르며 총점 [정답수 - (오답수÷4)]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구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장독립 인지양식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표준점수 환산표에 의거하여 50%에 해당하는 12점 이상인 학습자는

장독립형 학습자로, 11점 이하인 학습자는 장의존형 학습자로 구분하였다.

• 윤리 지식

연구자의 수업 내용을 반영하여 윤리이론과 원칙,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내용 중에서 학생이 바르게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Kim & Jeong[2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르면 0점)으로 하였고, 2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윤리적 가치관

Lee[21]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Park [22]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기준을 달리 해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Table 1>.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서 인간생명 관계영역 9문항, 간호사와 대상자간 관계영역 8문항,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영역 8문항,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은 윤리학적 측면의 주요 범주인 의무주의와 공리주의 입장의 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무론적 입장의 문항에서는 ‘찬성’ 5점에서부터 반대 ‘1점’을 부여하고, 공리주의 입장의 문항에서는 ‘찬성’ 1점에서 ‘반대’ 5점을 부여하여 윤리적 가치관을 점수화 하였다. 절대적 공리주의 입장을 1점, 절대적 의무주의 입장을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윤리적 가치관 문항번호 1, 2, 3, 7, 9, 11, 12, 14, 15, 17, 18, 19, 20, 21, 22, 26, 28, 29는 공리주의 입장의 문항이므로 ‘찬성’ 1점에서 ‘반대’ 5점으로 역산하였다.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후 5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3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고, 3점으로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공리주의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 간호윤리수업 만족도

Yoon[23]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Yoon[23]이

개발한 10점 Likert 척도의 5항목으로 이해정도, 흥미 정도, 수업방식 만족정도, 의욕도, 유익도 측면이다. 두 번째 부분은 10점 Likert 척도의 2항목으로 한국 간호 교육평가원에서 권고하는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를 달성하는데 간호윤리 수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하고자 ‘간호 윤리 수업 후 간호실무의 윤리적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간호 윤리수업 후 간호실무의 윤리적 기준을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문항을 연구자가 추가 하였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강의식과 토론식 수업의 선호정도를 측정하는 세 문항을 연구자가 추가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 7문항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10점 만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윤리수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 7문항의 수업만족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K대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No. ***-2-13-10-004)을 받은 후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D광역시에 위치한 일 개 대학의 간호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간호윤리수업을 4주 동안 12시간 시행하면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인지양식을 검사하고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간호윤리 수업 내용은 윤리이론 및 윤리원칙,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주차별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에 대하여 강의식과 토론식 수업을 병행하였다. 학생들은 미리 배포된 공리주의적 의사결정 방법, 의무론적 의사결정 방법, 공리주의와 의무론에 기초한 3단계 수정모형[24], Value-Be-Do 윤리적 의사결정모형에 따라 주어진 딜레마 사례를 분석해 오고 그룹별로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 도출된 결과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례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 모형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토론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Table 1〉 Items for Measure Ethical Values

Category	Items
Human life section	* 1. When a hopeless patient refuse treatment, do not take life sustaining actions
	* 2. I think it is right to accept the will of patients when patients ask for euthanasia
	* 3. I think it is right to stop the ventilator care if family want to do in the case of unconscious patients
	4. I think it is right to extend the life of hopeless patients using all available methods
	5. I think it is right that CPR is performed when the hopeless patient is having cardiac arrest
	6. I think it is right to take the life sustaining measures to hopeless newborn with severe congenital malformation using all available method
	* 7. I think it is right to take the life sustaining measures to patients with end stage disease for research purposes
	8. I think that abortion should not be carried out in any case since abortion is in violation of respect for life
	* 9. Abortion is violation of the respect for life, but I think i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case of a single mother without nurturing abilities
Subject relationship section	10. If the nurse and the patient's opinion do not match, I think that the patient is comply with the opinions of nurses.
	*11. When patients refuse treatment and nursing because of religious taboos, I think that the nurse is comply with the opinions of patient.
	*12. When patient informs his suicide plan and request a secret, nurse has to keep secret
	13. I think that we should communicate information about treatment at any time if patients want to know.
	*14. I think it is right not to provide information on diagnosis or prognosis to hopeless patients
	*15. I think it is right to relieve the family by telling the untruth in case of close to death due to accident
	16. Nurses are equipped with etiquette and provide the best nursing care even when the patient is rude to speak or act
	*17. I think it is right to avoid patients requiring a variety of thing not to provoke them
	*18. I think it is right not to provide the correct information if the patient is a danger to cause confusion about the drug
Nurse practice section	*19. I think it is right to follow the doctor's order absolutely, even if the mistake is suspected in the doctor's prescription
	*20. I think it is right to use the restraint freely for patient safety
	*21. I think it is right to impose priority to mild patient rehabilitation rather than severe patient recovery, if this time is limited
	*22. I do not need to report if the wrong treatment did not result in a worse outcome for patients
	23. I think that we should go quickly to help him when we discover a man fallen on the road
	24. I think that we should never strike because nurses serve patients
Copartnership section	25. I think that we should not give a patient placebo in any case
	*26. I think it is right to give a patient placebo if the patient requires additional analgesic despite the analgesic was administered 2 hours ago
	27. I think it is right to advice to correct mistake immediately when the colleague nurse do not keep aseptic techniques
	*28. I think it is right to accept the request if the colleague nurse will ask to change the content of the nursing records
	*29. I think it is right not to pretend to know when I discover the fault of the colleague nurse
30. I think it is right to recommend your friend to nurse director if the friend is more appropriate for head nurse although you are being recommended by appropriate person	

* Since these items based on utilitarianism, so coding was done conversely

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및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 평균비교는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는 유의수준 0.05에서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9.99세이고, 56.8%가 종교를 가졌으며 68.5%가 임종환자를 관찰한 경험이 없었다. 대상자의 47.7%가 문과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51.0%가 이과 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적성에 맞아서(38.3%), 취업에 용이하여(26.2%), 직업의 안정

성(19.5%) 순이었고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38.3%), 보통(22.8%), 매우만족(16.8%) 순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회사원 및 공무원(38.3%), 상업 및 서비스업(29.5%) 순이었고 어머니 직업은 전업주부(31.1%), 상업 및 서비스업(25.7%), 회사원 및 공무원(22.3%) 순으로 분포하였다. 아버지 학력은 대졸(48.3%),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61.1%)가 가장 많았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raduated high school	Division of humanities	71(47.7)
	Division of science	76(51.0)
	Others	2(1.3)
Have religion	Yes	83(56.8)
	No	63(43.2)
Have met the patient dying	Yes	47(31.5)
	No	102(68.5)
Reason for applying to nursing	Easy to employment	39(26.2)
	Meet the aptitude	57(38.3)
	Stability of the job	29(19.5)
	Others	24(16.1)
Satisfaction to nursing	Extremely satisfied	25(16.8)
	Generally satisfied	87(58.4)
	Usually	34(22.8)
	Generally dissatisfied	3(2.0)
	Extremely dissatisfied	0(0.0)
Father's occupation	Educators	5(3.4)
	Business/services	44(29.5)
	Worker/official	57(38.3)
	Others	38(25.5)
Education of father	≤High school	61(41.5)
	College/ University	71(48.3)
	Graduate school	15(10.2)
Mother's occupation	Housewife	46(31.1)
	Educators	9(6.1)
	Business/services	38(25.7)
	Worker/official	33(22.3)
	Others	22(14.9)
Education of mother	≤High school	91(61.1)
	College/University	49(32.9)
	Graduate school	7(4.7)
Total		149(10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잠입도형검사 점수와 인지양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잠입도형검사 점수 차이와 인지양식은 <Table 3>과 같다. 잠입도형검사 점수는 32점 만점에 평균 9.25점이었다. Sung 등[19]이 적용한 표준점수 환산표에 의거하여 12점 이상을 장독립형 학습자로, 12점 미만을 장의존형 학습자로 구분한 결과 대상자의

62.4%가 장의존형, 37.6%가 장독립형 학습자였다. 장의존형 학습자와 장독립형 학습자 간 고등학교 졸업 시 전공 계열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8.74, p=.013$), 장의존형 학습자는 인문계열이 55.9%를 차지하였고, 장독립형 학습자는 자연계열이 66.1%로 많았다.

잠입도형검사 점수는 간호학과 지원동기($F=3.28, p=.023$)와 아버지의 직업($F=3.10, p=.029$)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Scheffe 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졸업한 고등학교 전공 계열, 종교, 임종환자 관찰 경험, 간호학과 만족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과 학력에 따라서도 잠입도형검사 점수와 인지양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

대상자의 윤리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15.97점, 윤리적 가치관 점수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72점이었다. 대상자의 강의식 수업방식 선호도는 10점 만점에 7.23점, 토론식 수업방식 선호도는 6.86점이었다. 대상자는 간호윤리 수업에서 59.8%가 강의식 수업방식을, 38.0%가 토론식 수업방식을 배치하기를 원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는 <Table 4>와 같다. 윤리지식은 문과계열 16.62점, 이과계열 15.43점으로 문과계열 졸업자가 유의하게 높았다($F=4.75, p=.010$). 그러나 종교, 임종환자 경험,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과 만족도, 부모의 직업과 학력에 따른 윤리지식의 차이는 없었다.

윤리적 가치관 점수는 간호학과에 매우만족(4.05점), 만족(3.66점), 보통(3.67점)인 대상자가 대체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3.1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9.39, p<.001$).

수업만족도는 간호학과 지원동기($F=3.32, p=.022$)와 간호학과 만족도($F=9.17,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군이 8.24점으로 취업에 용이해서 지원한 군(7.39점)보다 간호윤리수업 만족도가 높았고, 간호학과 만족도가 매우만족(8.74점), 대체로 만족(7.95점), 보통(7.42점)인 군이 대체로 불만족(5.43점)인 군에 비하여 간호윤리수업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Group Embedded Figure Test Score and Cognitive Sty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FT [†] score			Cognitive style			
		Mean±SD	t or F	p	FD [‡] n(%)	FID [¶] n(%)	χ^2	p
Graduated high school	Division of humanities	8.25±5.80	-1.90	.154	52(55.9)	19(33.9)	8.74	.013
	Division of science	10.21±6.46			39(41.9)	37(66.1)		
	Others	8.25±1.77			2(2.2)	0(0.0)		
Have religion	Yes	9.30±6.30	-0.06	.956	49(54.4)	34(60.7)	0.55	.495
	No	9.36±6.16			41(45.6)	22(39.3)		
Have met the patient dying	Yes	9.26±6.19	0.16	.987	30(32.3)	17(30.4)	0.06	.857
	No	9.24±6.18			63(67.7)	39(69.6)		
Reason for applying to nursing	Easy to employment	10.72±6.40	3.28	.023	21(22.6)	18(32.1)	2.56	.464
	Meet the aptitude	8.36±6.10			38(40.9)	19(33.9)		
	Stability of the job	11.01±5.70			17(18.3)	12(21.4)		
	Others	6.84±5.61			17(18.3)	7(12.5)		
Satisfaction to nursing	Extremely satisfied	10.60±5.31	0.66	.580	13(14.0)	12(21.4)	2.15	.542
	Generally satisfied	9.24±6.04			54(58.1)	33(58.9)		
	Usually	8.36±7.03			24(25.8)	10(17.9)		
	Generally dissatisfied	8.25±7.50			2(2.2)	1(1.8)		
	Extremely dissatisfied	-			0(0.0)	0(0.0)		
Father's occupation	Educators	6.50±7.63	3.10	.029	3(3.3)	2(3.8)	6.51	.089
	Business/services	7.14±5.20			34(37.4)	10(18.9)		
	Worker/Official	10.57±6.45			30(33.0)	27(50.9)		
	Others	9.80±6.26			24(26.4)	14(26.4)		
Education of father	≤High school	8.78±6.16	0.28	.754	44(47.8)	17(30.9)	4.11	.128
	College/University	9.60±5.77			40(43.5)	31(56.4)		
	Graduate school	9.00±8.25			8(8.7)	7(12.7)		
Mother's occupation	Housewife	9.36±5.73	1.31	.269	29(31.5)	17(30.4)	4.95	.292
	Educators	7.56±8.32			6(6.5)	3(5.4)		
	Business/Services	7.79±5.19			28(30.4)	10(24.8)		
	Worker/Official	10.75±6.67			16(17.4)	17(30.4)		
	Others	10.13±6.18			13(14.1)	9(16.1)		
Education of mother	≤High school	9.53±5.84	0.58	.562	56(60.9)	35(63.8)	1.68	.432
	College/University	8.53±6.44			33(35.9)	16(29.1)		
	Graduate school	10.57±9.08			3(3.3)	4(7.3)		
Total		9.25±6.17 (range: -8.00 ~ 28.25)			93(62.4)	56(37.6)		

† GEFT: Group Embedded Figure Test. The higher the score on thirty-two point scale means field independent tendencies. Subjects who rating 12 points or more mean field independent learners and less than 11 points mean field dependent learners

‡ FD: Field dependent

¶ FID: Field independent

3.4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

대상자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 점수는 <Table 5>와 같다. 윤리지식은 장의존형 학습자가 20점 만점에 평균 16.32점, 장독립형 학습자가 평균 15.3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윤리적 가치관은 장의존형 학습자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71점, 장독립형 학습자가 3.7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 영역인 인간생명 영역, 간

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두 구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만족도는 장의존형 학습자가 평균평점 10점 만점에 8.08점, 장독립형 학습자가 7.6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99$, $p=.049$). 특히 재미($t=-2.28$, $p=.025$)와 수업진행 흥미정도($t=-2.25$, $p=.013$)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장의존형 학습자의 수업만족도가 높았다.

〈Table 4〉 Ethical Knowledge, Ethical Value, Nursing Ethics Class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Ethical knowledge			Ethical value			Ethics class satisfac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raduated high school	Division of humanities ^a	16.62±2.50	4.75	.010	3.71±0.47	0.13	.876	8.15±1.29	2.22	.113
	Division of science ^b	15.43±2.70	a>b		3.72±0.38			7.70±1.40		
	Others ^c	13.50±0.71			3.85±0.73			7.21±2.12		
Have religion	Yes	16.11±3.15	0.86	.389	3.71±0.44	-0.34	.876	7.84±1.54	-0.52	.602
	No	15.75±1.88			3.73±0.41			7.96±1.13		
Have met the patient dying	Yes	15.79±2.86	-0.58	.564	3.73±0.48	0.23	.818	7.75±1.37	-0.94	.349
	No	16.06±2.57			3.71±0.40			7.98±1.37		
Reason for applying to nursing	Easy to employment ^a	16.28±2.13	2.21	.089	3.65±0.39	1.71	.169	7.39±1.45	3.32	.022
	Meet the aptitude ^b	15.98±2.13			3.80±0.39			8.24±1.20	a<b	
	Stability of the job ^c	16.53±2.54			3.73±0.47			8.05±1.28		
	Others ^d	14.79±4.14			3.61±0.48			7.79±1.52		
Satisfaction to nursing	Extremely satisfied ^a	15.68±2.76	1.08	.361	4.05±0.29	9.36	<.001	8.74±1.49	9.17	<.001
	Generally satisfied ^b	16.26±2.37			3.66±0.40	a,b,c >d		7.95±1.18	a,b,c >d	
	Usually ^c	15.38±3.29			3.67±0.44			7.42±1.32		
	Generally dissatisfied ^d	16.67±0.58			3.11±0.21			5.43±0.87		
Father's occupation	Educators ^a	14.20±6.46	0.94	.424	3.48±0.39	0.73	.534	7.11±1.27	0.87	.458
	Business/Services ^b	15.95±1.88			3.67±0.42			7.79±1.20		
	Worker/Official ^c	16.03±2.58			3.73±0.36			8.03±1.14		
	Others ^d	16.32±2.88			3.74±0.51			7.99±1.78		
Education of father	≤High school ^a	16.54±1.91	2.83	.062	3.81±0.41	3.77	.025	8.01±1.27	1.23	.294
	College/University ^b	15.75±2.80			3.67±0.41	a>c		7.92±1.46		
	Graduate school ^c	14.93±4.11			3.51±0.47			7.39±1.35		
Mother's occupation	Housewife	15.67±2.80	1.54	.193	3.62±0.47	1.60	.175	7.84±1.60	0.64	.634
	Educators	15.44±3.64			3.64±0.37			7.51±1.75		
	Business/Services	16.66±1.79			3.83±0.42			8.07±1.20		
	Worker/Official	15.33±3.24			3.68±0.34			7.73±1.14		
	Others	16.45±1.99			3.80±0.42			8.14±1.28		
Education of mother	≤High school	15.97±2.55	0.95	.391	3.77±0.41	2.30	.104	8.02±1.32	0.97	.381
	College/University	16.18±2.77			3.63±0.46			7.82±1.40		
	Graduate school	14.71±3.04			3.57±0.34			7.37±1.37		

‡ FD : Field dependent
 ¶ FID : Field independent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과반수가 이과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문과계열 학생도 47.7%를 차지하였다. 이는 간호학과가 문과와 이과계열 졸업생의 교차지원을 허용함에 따라 문과 학생의 유입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간호학은 인간, 건강, 환경, 간호

〈Table 5〉 Ethical Knowledge, Ethical Value and Nursing Ethics Class Satisfaction according to Cognitive Style

(N=149)

Variables	Cognitive style		t	p
	Field dependant	Field independent		
	(n=93)	(n=56)		
	Mean±SD	Mean±SD		
Ethical knowledge	16.32±2.12	15.39±3.31	-1.88	.064
Ethical value	3.71±0.46	3.72±0.37	0.15	.883
Human life section	3.65±0.62	3.53±0.59	-1.29	.199
Subject relationship section	3.85±0.49	3.86±0.39	0.01	.993
Nurse practice section	3.60±0.50	3.55±0.50	-1.47	.145
Copartnership section	4.21±0.51	4.20±0.57	-1.68	.095
Class satisfaction	8.08±1.17	7.63±1.62	-1.99	.049
Comprehension	7.48±1.41	7.09±1.42	-1.65	.101
Funny	8.05±1.46	7.34±2.05	-2.28	.025
Interesting	8.24±1.36	7.48±1.97	-2.25	.013
Ethical decision making willingness	8.20±1.41	7.64±2.23	-1.89	.061
Usefulness	8.80±1.16	8.48±1.96	-1.23	.221
Understanding ethical standards	8.13±1.43	7.95±2.12	-0.63	.531
Practical application	7.66±1.40	7.39±2.17	-0.90	.370

에 대한 학문으로서 간호의 대상인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과 졸업생 뿐 아니라 문과 졸업생의 간호학과 입학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지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잠입도형검사 점수는 평균 9.25점이었다. Sung 등[19]이 제시한 총점계산식에 의거하여 12점 이상을 장독립형 학습자, 11점 이하를 장의존형 학습자로 분류하였을 때 대상자의 62.4%가 장의존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이학, 공학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의 학생보다 장의존적임을 주장한 Kim과 Hong의 결과[10]와 타 건강 관련 학문 분야의 학생보다 장의존적임을 주장한 Noble 등[17]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g 등의 연구[19]에서는 장독립형 학습자가 68.8%로 더 많아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어 간호대학생의 인지양식을 추후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장의존형 학습자는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방식으로 사물과 환경을 받아들이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선호한다[25]. Witkin 등[13]이 1,422명의 신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잠입도형검사를 실시하여 인지양식을 파악하고 전공과 직업선택을 확인한 결과 장독립형 학습자는 수학과 과학을, 장의존형 학습자는 대인관계 기술이 필

요한 사회학, 간호학, 교육학 등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의존형 학생의 비율이 높은 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선호하는 장의존형 인지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주로 간호학과를 선택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인지양식은 고등학교 졸업 시 전공 계열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직업과 학력, 간호학과 만족도, 종교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동의 성장은 물리적 환경인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부모와 아동간의 심리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25].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직업과 학력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지양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선행 연구[26]를 지지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시 문과 계열 대상자는 장의존형 학습자 비율이, 이과 계열 대상자는 장독립형 학습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분석적 사고력이 발달한 장독립형 학습자가 수학과 과학을 선호하여 이과를 택하고 사회관계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장의존형 학습자가 문과 계열을 선택하는 경향 때문이라 추측된다.

대상자들의 간호윤리수업 후 윤리지식은 15.97점으로 동일한 윤리지식 도구로 4학년을 대상으로 측정된 Kim과 Jeong의 결과[20]와 유사하였고, 본 연구에서 문과 계열 대상자가 이과 계열보다 윤리지식 점수가 높았다. 이는 문과 계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이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윤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더 많기 때

문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윤리적가치관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선행 연구결과[20]에 비하여 의무론적 성향이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0]의 대상자가 4학년 학생임에 비하여 본 연구 대상자가 1학년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학년 진학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인지양식이 개인의 인지능력보다 태도나 성격[17, 25],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이나 적성[10]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9, 27, 28]에서는 장독립형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잠입도형검사가 인지적 특성보다 지식과 같은 인지능력을 측정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윤리지식이 인지양식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양식이 지식보다 학습자의 태도, 성격, 특성, 및 적성을 반영한다는 선행연구[10, 17, 25]의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인지양식을 측정하는 잠입도형검사가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지양식은 비교적 변화하기 어려운 개인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10, 17, 25]. 변화하기 어려운 인지양식이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의 지식, 태도,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교육적 입장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토론식 수업방식보다 강의식 수업방식을 선호하였고 전체 수업에서 강의 60%, 토론 40%를 배치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토론식 수업이라 하더라도 수업 전체를 토론으로 구성하기보다 강의와 토론의 비율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업만족도는 강의존형 학습자가 높았다. 특히 재미와 수업진행 흥미 측면에서 강의존형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은 점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간호윤리수업이 토론식 수업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토론식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수와 그룹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강의존형 학습자의 학습을 더 촉진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강의존형 학습자는 교사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과 구조화된 자료를 이용한 설명식 수업에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다[17, 19]. 그러므로 구체적인 간호실무 현장에서 강의존형 학습자

들의 윤리적인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도입한 구조화된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한 그룹 토론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장독립형 학습자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17] 능동적이고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여[26] 토론 자체보다 수업 전에 개별적으로 윤리이론을 바탕으로 딜레마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이 수업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론적 지식을 획득하고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장독립형 학습자도 자신의 근거가 새로운 환경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29]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는 등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인지양식에 따라 수업방식을 다르게 접근하더라도 인지양식 별로 분리하여 수업하기보다 인지양식이 다른 학습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학은 타 계열 학문에 비하여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학생이 함께 학습한다. 다양한 인지양식을 가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교육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입학한 후 인지양식을 파악하고 이를 수업 설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인지양식에 따른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 및 간호윤리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간호학생에게 적합한 간호윤리 교육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62.4%가 강의존형 인지양식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인지양식에 따라 윤리지식, 윤리적 가치관은 차이가 없었지만 간호윤리수업 만족도는 재미와 수업진행 흥미 측면에서 강의존형 학습자가 높았다. 간호윤리수업을 설계할 때 강의존형 학습자를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 도구와 같은 구조화된 자료와 함께 교수와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장독립형 학습자를 위해 딜레마 사례와 질문을 미리 제시하여 개인별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인지양식을 나타내는 간호학생에게 최선의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학 후 학생들의 인지양식을 파악하여 이를 수업설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1학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간호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학년별로 확대한 연구와 다양한 간호학과 전공과목에서 인지양식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K. J. Lee, & S. Y. Yoo,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ethical dilemma, coping typ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7, No. 1, pp. 1-15, 2002.
- [2] H. J. Park, & M. Y. Kim, Ethical dilemma and coping types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0, No. 1, pp. 75-83, 2004.
- [3] G. S. Jeong, The effect of gender, eth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students in one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672-5681, 2013.
- [4] M. S. Yoo, & H. S. Park,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ethics awarenes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Bioethics Association*, Vol. 11, No. 1, pp. 51-60, 2010.
- [5] E. K. Park, J. S. Shin, C. R. Ahn, M. W. Sung, & I. Kwon, Medical ethics education using "Student Symposium".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5, No. 2, pp. 143-150, 2002.
- [6] M. S. Yoo, & K. C. Sho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Bioethics Association*, Vol. 12, No. 2, pp. 61-76, 2012.
- [7] M. A. Lee, Changes in nursing students' moral judgement and ways to evaluate the effect of eth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9, No. 3, pp. 351-360, 2013.
- [8] S. H. Kim, &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57-1565, 2014.
- [9] S. Y. Kim, & K. L. Cho, The effect of different cognitive styles on metacogni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6, No. 2, pp. 177-196, 2010.
- [10] H. S. Kim, & S. H. Hong, Relationship of cognitive style, self-efficacy and academic adjustment according to major families of college students. *Education, Science and Research*, Vol. 37, No. 2, pp. 1-21, 2006.
- [11] I. S. Lee, C. S. Park, & H. O. Park, The effectiveness of problem based learning (PBL) across learn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658-5671, 2013.
- [12] H. J. Lee,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focus feedback to golf putting learning according to cognitive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Ehwa University, 2008.
- [13] H. A. Witkin, C. A. Moore, D. R. Goodenough, & P. W. Cox, Field-dependent and field-independent cognitive styles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7, No. 1, pp. 1-64, 1977.
- [14] H. A. Witkin, P. K. Oltman, E. Raskin, & S. A. Karp, *A Manual for embedded figures test*.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71.
- [15] M. E. Franklin, Culturally sensitive instructional practices for African-American learners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Vol. 59, pp. 115-122, 1992.
- [16] M. Tennant, *Psychology of adult learn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8.
- [17] K. A. Noble, S. M. Miller, & J. Heckman, The cognitive style of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7, No. 6, pp. 245-254, 2008.

[18] S. H. Ham et. al, Conceptualizing Yungbokhap education: An analysis of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chool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Vol. 16, No. 1, pp. 107-136, 2013.

[19] M. S. Sung, J. I. Lee, & S. O. Ro, Instructional motivation and response according to cognitive style after application of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CAI) for college student nurses.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8, No. 2, pp. 220-233, 1997.

[20] C. H. Kim, & S. Y. Jeong,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based on an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on ethical knowledge, class satisfaction,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405-414, 2014.

[21] Y. S. Lee, A study on nurses' ethical valu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0, No. 2, pp. 249-270, 1990.

[22] M. H. Park, The patterns of change in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2, pp. 199-217, 2000.

[23] H. W. Yoon, The effects of activity-based learning on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handwash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9.

[24] H. S. Kim, & O. J. Kim, Ethical decision-making process model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2, pp. 701-717, 2009.

[25] O. S. Lee, The study on cognitive styles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ocial Science Research*, pp. 72-95, 1998.

[26] H. J. Lee, A study of children's field independ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9, No. 1, pp. 291-309, 2002.

[27] M. H. Shinn, & E. H. Seo, The relationship among

cognitive style, major and academic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1, No. 1, pp. 139-148, 2003.

[28] L. F. Zhang, Field-dependence/independence: Cognitive style or perceptual ability-validating against thinking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7, pp. 1295-1311, 2004.

[29] J. Ismeurt, R. Ismeurt, & B. K. Miller, Field-dependence/independence: Considerations in staff development.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 23, No. 1, pp. 38-41, 1992.

정 선 영(Jeong, Sun Young)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염관리, 간호윤리
- E-Mail : jsy@konyang.ac.kr

김 창 희(Kim, Chang Hee)



- 198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재활간호
- E-Mail : nursech@konyang.ac.kr